

[사회]

구 재단 “법정 싸움 불사” 조선대 정상화 가시밭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꾀하면서, 구 재단 측이 새로 편성되는 정이사 진용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 재단 측 핵심인물인 정애리씨(84·박철웅 전 총장의 부인)씨는 최근 기자회견의 전화통화에서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 재단 측 인사들이 정이사 체제에서 배제된다면 소송 등을 통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의다.

정이사 참여 요구...과거 두차례 소송선 구 재단 패소

1988년 조선대 학내민주화운동 이후 조선대와 구 재단측은 지금까지 2차례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모두 조선대의 손을 들어줬다. 박 전 총장과 정씨는 지난 1991년 교육부를 상대로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988년 2월 학내민주화 과정에서 총장직을 물러난 박 전 총장의 지위를 복원시켜달라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1995년 3월 ‘이유 없음’을

이유로 박 전 총장측의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은 “1986년 12월 이사로 선임된 박씨와 정씨의 임기는 1990년 12월 이미 만료됐으므로 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조선대 측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관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다. 조선대 측은 박 전 총장이 1982년 법인 정관의 별지에 기재된 설립 당시 이사 명단에 ‘이사장 박철웅’이란 조항을 ‘이사장(설립자) 박철웅’이라고 임의대

로 바꿨다며 이를 정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1999년 7월 “교육부가 1982년 정관변경 인가처분을 한 것은 이사회 회의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채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했던 정관변경(안)의 보완신청서에만 의존했으므로 명백한 하자여 있어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선대법인 정관에는 ‘설립자’ 부분이 삭제돼 있다. 그렇다면 정애리씨는 어떤 근거로 법정 소송의 뜻을 내비쳤을까. 정씨 대리인으로 지난 17일 열린 사학분쟁조

정위에 출석한 김병현(64·전 조선대 직원)씨는 “임시이사 체제를 청산하고 정이사 체제로 갈 때는 직전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결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은 지난해 5월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했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사학법인의 경우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설립 이념이 우선돼야 하며, 설립 이념은 이사 선임의 연계성으로 유지된다는 요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학분쟁조정위가 다음달 14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현 조선대 측의 의견을 반영, 구 재단 측을 배제했을 때는 새로운 법정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구 재단 측을 인정해 새 이사에 이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임명했을 때는 조선대 구성원들의 큰 저항이 예상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흐린 하늘 찬바람

흐리고 한두차례 눈이나 비가 오겠다.

광주	눈/비	1~5℃
주요	눈/비	1~4℃
포수	눈/비	4~6℃
수도	눈/비	3~5℃
대구	눈/비	0~5℃
부산	눈/비	2~5℃
인천	눈/비	3~5℃
대전	눈/비	4~6℃
충주	눈/비	0~5℃
청주	눈/비	0~4℃
전주	눈/비	1~4℃
제주	눈/비	0~4℃
울릉도	눈/비	0~4℃
독도	눈/비	1~2℃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남해동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0:31 썰물 < 06:05
목포 밀물 < 13:34 썰물 < 19:02
여수 밀물 < 08:34 썰물 < 01:51
여수 밀물 < 20:36 썰물 < 14:43

▲해돋이 07:39 ▲해질 17:49 ▲달돋이 16:14 ▲달질 06:34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 날씨

날짜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날씨						
최저/최고	0/4	-4/2	-5/3	-3/5	-3/5	-3/6

‘쉬는 시간 운동장’ 부상 조심

광주 초·중·고 안전사고 매년 증가 추세

광주시내 초·중·고교의 안전사고는 주로 ‘쉬는 시간 운동장에서’ 일어나며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광주시교육청이 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현장의 안전사고 1천430건 중 43.9%인 628건이 ‘휴식 시간’에 일어났으며, 35.4%인 506건이 ‘운동장’에서 발생했다. 윤 위원은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2005년 1천139건 ▲2006년 1천350건 등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라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철저한 안전지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총 사고건수를 발생시간별로 나누면 ‘휴식시간’ 다음으로 ‘체육 시간’(25.4%·363건)이 많았으며, ‘특활시간’(8.0%·114건), ‘정소시간’(5.1%·73건), ‘방과후활동’(4.3%·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운동장’ 외에 ‘교실’(19.9%·284건), ‘체육관’(11.8%·169건), ‘계단’(11.3%·161건), ‘복도’(9.0%·1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은 ‘학생 부주의’가 78.3%인 1천1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우발적’ 사고는 306건으로 21.4%를 차지했다. 사고 내용은 ‘골절’(36.5%·522건), ‘염좌’(24.1%·344건), ‘열상’(20.8%·297건) 순이었다. 광주학생안전공제회가 지출한 학생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금은 ▲2005년 4억2천275만원 ▲2006년 5억7천660만원 ▲2007년 4억7천708만원 등이었다. 윤 위원은 “교내 안전사고는 학교 시설이나 교구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일도 적지 않아 교육환경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21일 광주일보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8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미 광주일보 신춘문예회 회장,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자 강윤미, 신춘문에 당선자 김순애(동화)·최일걸(시)씨,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

2008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자와 제3회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자 시상식이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08년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자 최일걸(40)씨와 동화 부문 당선자 김순애(여·34)씨에게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또 광주일보 문학상 당선자인 시인 강윤미(여·28)씨에게도 상패와 창작지원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광주일보 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

문에출신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마련됐다. 광주일보 김진영 사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배출된 200여명의 문인들이 시, 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독자적인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 문단의 내일을 이끌어 갈 문학청년들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광주일보 신춘문예회 회원들의 작품집인 ‘금남로 가는 길’ 11집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유유 무상 급식 확대 내년 63만명으로 늘려

농림부는 21일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한정된 유유 무상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과 도서·벽지 학생으로까지 늘리는 것을 포함한 ‘학교유유 급식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지난해 약 37만 명이었던 유유 무상 급식 대상은 내년 1학기부터 63만명으로 26만명 늘어나게 된다. 또 이번 개선안은 중·고등학교에 학교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흰 우유’ 이외 ‘가공 우유’의 급식도 가능토록 했다. /연남뉴스

광주 지하철 기술자들 봉사단 구성 “불우이웃들 집 고쳐드립니다”

광주시 지하철 건설과 보수를 맡아온 기술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1일 진흥건설(주)과 사회공헌경영 실천협약을 맺고 분기마다 20~30명이 참여하는 ‘메트로 생활개선 봉사단’을 구성했다. 이날 협약에서 공사측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구 및 기술인력 지원을, 진흥건설은 여기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제공키로 했다. 봉사단원들은 동사무소를 통해 파악한 지역의 저소득 가정이

나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해 훼손된 지붕과 벽, 노후된 전기배선, 편의시설 등을 수리해 줄 예정이다. 단원들은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선로 보수나 역사 건축, 설비 관리, 전기 배선 등을 담당하는 기술자들로 구성됐다. 오영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공사측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술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겠다”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지방경찰청사 준공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오전 10시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신청사에서 이택순 경찰청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사 준공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총 사업비 371여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 8월에 착공, 대지면적 3만9천961㎡에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의 본관동과 지상 2층의 민원실이 지난 13일 완공했다.

신청사 안에는 기본 근무시설과 함께 실내사격장, 사무관, 목욕탕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오늘 5월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추가 신축할 예정이다. 최병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신청사 이전으로 광주·전남경찰의 여환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광산동(구 전남도청) 시대를 마감하고 ‘소촌동 시대’를 열게 됐다”며 “청사신축을 계기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국제약품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캠페인
매일 '손에 닿기 좋은 좋은 약'을 찾아주세요.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었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유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노년기
- 노년 관절염 완화, 지방산
- 지방 피부병 등이 의한 색소침착
- 피부, 근육의 노화, 잇몸출혈,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백내장 시 다른
중성 지방의 축적, 고콜레스테롤,
수축성 심근병증
아연의 보충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www.kukje.com
080-022-2200